

주사 대신 먹는 비만치료제… 글로벌시장 지각변동 예고

美 ‘오폴리프론’ 내년 출시 전망
임상서 환자 체중 최대 7.3kg 감소
일동제약·대웅제약 등 개발 박차
화이자, 부작용 발생에 임상 중단

주사제가 아닌 먹는(경구용) 비만치료제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8% 가량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내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사제에 비해 환자들의 복용과 유통이 쉽다는 이점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 먹는 비만약, 게임체인저 될까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치료제 ‘오폴리프론’이 이르면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오폴리프론 임상 3상의 탑라인(주요 지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오폴리프론은 위고비, 켈바운드 등 블록버스



일라이릴리.

터 주사제인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저분자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이번 임상에서 2형 당뇨병 환자 559 명에게 40주간 오폴리프론 혹은 위약(가짜 약)을 매일 투여한 결과, 오폴리프론 투약 그룹에서는 ‘혈당(당화혈색소·A1C)’이 1.3~1.6% 줄었다. 위약의 0.1% 감소에 비해 의미가 있는 수치다.

특히, 환자들의 체중은 최대 7.3kg (7.9%) 줄었다. 하루 한 번 오폴리프

론 3mg을 복용한 환자들은 40주 후 평균 4.7% (4.4kg), 12mg 복용군은 평균 6.1% (5.5kg), 36mg 복용군은 평균 7.9% (7.3kg) 체중이 줄었다. 반면 위약 복용군은 평균 1.6% (1.3kg) 감량됐다.

릴리는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 열풍을 일으킨 노보 노디스크는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제제를 개발 중이다. 미국 기업인 바이킹 테라퓨틱스 역시 먹는 비만 치료제 ‘VK 2735’의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AZD5004’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슈는 ‘CT-996’의 임상 1상을 완료했다.

◆ 국산 치료제는 언제 나오나

국내 기업들도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빠른 곳은 일동제약이다. 일동제약은 현재 경구용 GLP-1 치료제 후보물질 ‘ID110521156’을 개발 중이며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한 상태다. 삼천당 제약 역시 GLP-1 경구용 치료제 신약 ‘SCD0506’을 개발 중이며, 전임상을 완료하고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다.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은 GLP-1과 포도당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GIP) 등 두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작용제를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다. GLP-1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약물은 위장운동을 지연시켜 구역질, 구토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만, GI

P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다만, 최근 경구용 비만치료제 중단 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임상2상 참여자 가운데 1명에게서 간 손상이 확인되면서, GLP-1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 임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23년에도 구토·설사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임상을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암젠 역시 올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AMG 513의 임상 1상 시험이 FDA의 임상 보류 조치를 받으며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먹는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에 비해 일단 환자들의 거부감이 적고, 대량 생산과 유통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약값도 낮출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다”며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이상 반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한양행, ‘비건’부터 ‘더마’까지… 화장품 사업 다각화

더마푸라민, CJ올리브영 공식 입점
바디용 4종, 헤어용 2종 제품 구성
딘시, 佛·英 비건 인증 동시 진행

유한양행이 화장품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더마푸라민’은 유한양행 자체 의약품 1호인 ‘안티푸라민’에서 영감을 얻은 브랜드로 오는 2026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유한양행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다.

20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더마 전문 브랜드 ‘더마푸라민’은 지난 16일부터 국내 대표 뷰티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에 공식 입점했다.

더마푸라민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한 브랜드로 바디용 4종과 헤어용 2종으로 구성됐다.



더마 전문 브랜드 ‘더마푸라민’ 바디 제품 4종 /유한양행

바디 제품은 데일리 모이스춰 바디로션, 데일리 모이스춰 바디크림, 데일리 모이스춰 바디워시, 쿨링 바디워시 등으로 모두 피부 장벽 강화, 항염, 피부 진정 등에 효과를 갖췄다.

유한양행은 해당 제품들의 주성분으로 ‘시카슈롬’을 활용했는데, 이 성분은 병풀 유산균과 제주 백화고에서 얻은 특허받은 원료다. 원료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약물의 유효 성분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조절하는 제약 기술을 적용해 각 원료의 흡수력과 유효성을 높였다.

헤어 제품으로는 프로바이오 메타필링 케어 샴푸와 프로바이오 스칼포니딕 케어 트리트먼트가 선보여진다. 탈모 증상을 완화해 주고, 자외선 등에 노

출되면서 손상된 모발을 관리해 준다.

유한양행은 더마푸라민을 앞세워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은 앞서 2023년부터 첫 뷰티 브랜드로 ‘딘시’를 공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딘시는 고급 자연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고기능성 비건 브랜드다. 국내 뷰티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이브 비건’과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딘시 대표 제품인 ‘프리미엄 비건 톤업 선크림’의 경우, 지난해 올리브영에서 ‘2024 선풍기 부분 트렌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리브영 전체 선풍기 제품 가운데 여섯 차례에 걸쳐 1위를

달성한 것이다. 최근에는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선블록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유한양행은 이처럼 독자 구축한 뷰티 브랜드를 기반으로 생활건강 사업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 성과를 냈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생활건강 사업 매출은 2406억원으로 전년 2153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딘시, 더마푸라민 등을 포함하는 생활건강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로 커졌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국민연고 안티푸라민을 연구개발한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기업 정신을 계승해 더마푸라민을 내놓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전세대의 주요 문제성 피부를 고민하는 등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종근당건강, ‘씨케이디 개런티드’ 브랜드 캠페인 강화

브랜드 설립 5주년 기념 행사

종근당건강은 피부건강기능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 설립 5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종근당건강에 따르면, 씨케이디는 최근 ‘씨케이디로 건강해진 피부’ 뷰티 행사에서 브랜드 앰버서더 한혜진과 함께 피부과 의사, 뷰티 크리에이터, 팔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환해진 피부 관리 교실’에서 씨케이디의 제품개발담당 김지윤 이사가 브랜드 대표 제품 탄생 배경,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씨케이디 개런티드가 톱모델 한혜진과 함께 ‘건강해진 피부’ 뷰티 행사를 성료했다.

/종근당건강

특히 비타씨테카의 경우 잡티 및 흔적을 집중 관리하는 제품군이다. ‘비타씨테카 토닝샷 세럼’을 1-2번 도포한 후 ‘비타씨테카 기미잡티 샷 마스크’를 붙이면 집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것처럼 ‘환해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비타씨테카는 고순도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5종,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등 유효 성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또 ‘존존해진 피부 관리 교실’에서는 씨케이디의 팔사목주름크림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제공됐다. 해당 제품은 목 부위 가로세로 주름, 승모근 부위 피부 유연함, 피부 탄력 및 붓기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건강 조영한 화장품사업부장은 “이번 행사로 브랜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피부 건강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피지오겔, ‘짱구 한정판’ 썬케어 제품 선포

썬로션, 썬스크린 제품

LG생활건강은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와 협업한 ‘피지오겔 썬케어 짱구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지오겔 대표 제품인 저자극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썬로션’과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마일드 릴리프 썬스크린 워터프루프’, ‘레드수딩 AI 센서티브 썬스크린 어드밴스드’가 짱구 한정판으로 선보여진다.

또 이번 한정판에는 자외선 차단과 함께 주름 및 미백 관리 기능을 갖춘 ‘레드수딩 AI 썬 멀티밤’, 자연스러운 피부 톤업 효과의 ‘레드수딩 AI 톤업 썬스크린’, 모공을 위한 ‘시카밸런스 포어솔



피지오겔 썬케어 짱구 한정판. /LG생활건강

루션 썬스크린’가 포함된다.

각 제품에 천방지축뛰어노는 짱구와 가족들의 즐거운 일상을 그려낸 디자인이 적용됐다.

피지오겔 썬케어 짱구 에디션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시작으로 피지오겔 브랜드 직영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무신사, 쿠팡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된다.

/이청하 기자